

PSAT 언어논리영역의 성격과 성과*

김명석**

< 차례 >

1. 들어가는 말
2. PSAT 성격과 언어논리영역의 문제유형
3. PSAT에 대한 반응과 결과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시대마다 당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공무원 채용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혁했다. 고려 말 공민왕은 채용시험의 개혁을 통해 반원개혁정치를 추진하려 했다. 조선의 영조와 정조는 관료의 채용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정치적 안정과 개혁을 도모했다. 한편 정조 이후 세도가들

* 이 논문은 국어교육학회 제38회 학술발표대회(2007. 12. 15)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이 글에 등장하는 통계 자료를 만들어주신 김기원, 김승태 전문관, 최선호, 김휘강 사무관, 그리고 PSAT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이재천 서기관, 서한순 사무관, 김건우 주무관, 함수진 선생께 깊이 감사드린다. 현재의 PSAT 언어논리영역을 설계하고 정착시킨 양은석, 최원배 선생 그리고 논리적 사고의 토착화를 위한 식지 않는 열정을 보여준 민찬홍, 송하석, 이병덕 선생, 동고동락했던 이름을 모두 거론할 수 없는 수많은 시험위원께도 감사드린다. 또한 PSAT 언어논리영역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볼 좋은 기회를 준 국어교육학회, 출제 업무뿐만 아니라 지난 2007년 12월 학회에서 유익미한 논평을 해주신 신선경 선생께도 특별히 감사드린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oxys@paran.com

의 문란한 채용시험 운영은 국가를 망하게 하는 첫 단추가 되었다. 양반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시험 응시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조정은 이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와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다.

한 시험장에 심지어 26,000명이 동시에 입장하기도 했는데 출제와 시험과 채점은 공정하게 집행되지 못했다. 철종 때는 시험장에 오지도 않고 집에서 답안을 제출한 응시생이 급제하기도 했다. 헌종 10년 때 실시된 과거에서는 접수된 답안지가 2천 장에 달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급제자를 발표했다. 시험제도를 정비하고 운영하는 고위관료들은 공무원 채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려고 하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근대적 선발제도를 통해 채용된 관료들은 기층 민중으로부터 성장하는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지 못했으며 19세기 말 외부 세계의 도전을 감당하지 못했다.

전략은 군사나 외교안보,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을 더 높게 인정해야 할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특별히 국가를 경영하고 전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에게 보다 절실한 문제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시대 변화에 적합한 관료를 선발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PSAT(공직적격성평가, Public Service Aptitude Test)를 도입하였다. PSAT의 궁극 목적은 지식정부에 적합한 지식관료를 양성하고 채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식정부란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지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지식기반 경제를 지원하는 데 최적화된 정부를 말한다.

국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식정부는 각종 정책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들을 체계적이고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할 때마다 필요한 지식을 매번 새롭게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정부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즉각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으며, 정부들 간 국제 경쟁 속에서 생존할 수도 없다. 따라서 개별 공무원들은 탁월한 학습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환경변화를 따라가며 끊임없이 학습하여 자신의 공적 임무를 완수하는 지식노동자 즉 지식관료가 되어야 한다. 응고된 기성 지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관료들만으로는 지식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

다. 지식정부는 어떠한 종류의 문제가 새롭게 출현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학습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PSAT가 궁극적으로 변별하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학습능력과 변화대응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다.

PSAT 언어논리영역의 성격과 취지와 목적은 이런 거시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때때로 PSAT 언어논리영역이 일반적인 국어 및 언어 능력검사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는 이유는 이런 맥락을 도외시켰기 때문이 아닌가 우려한다. 그러나 국어교육의 이념과 지식정부의 이념은 상충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성숙된 시민사회와 세계 환경 변화에 맞는 사람을 길러내고 그런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리라 믿는다. 아래에서 그간 실시된 언어논리영역의 시험을 개괄하고 성과를 평가한 뒤 그 한계를 짧게 언급하고자 한다. 직무상 얻게 된 정보를 이 글에서 모두 말할 수 없는 제한과 주저를 양해주시기 바란다.¹⁾

2. PSAT 성격과 언어논리영역의 문제유형

PSAT는 1999년에 공식적으로 도입이 제안되어 그 이후 4년간 연구개발을 거친 뒤 2004년 외무고시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2005년부터는 행정고시와 지방인재추천채용시험에도 확대 시행했다. 국회 사무처에서 시행하는 입법고시에서도 동일 명칭의 유사 시험을 사용하고 있다. 원래 2008년부터 일부 공기업 적성시험에도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신정부의 새로운 공기업 정책으로 인해 수립된 모든 계획들이 일시 중단된 상태이다. 장차 국정원, 법원 등에도 도입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전언이 있었다. 2008년 현재 행정고시, 외무고시, 지방인재추천채용시험의 1차 시험은 오직 PSAT

1) 동시에 글이 다룰 주제와 내용의 성격상 학술적 논문이 요구하는 정도의 참조와 인용 및 문헌을 갖추지 못한 점도 양해해주셨으면 한다. 이 글을 쓰면서 정부 용역 보고서, 다양한 설문조사, 시험결과에 대한 내부 분석자료, 전문가들과 다양한 대담 등을 참조했지만, 이에 대한 참조 표시를 하지 않을 것이다.

만으로 합격자를 가린다.

PSAT는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영역은 5지 선택형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80분 동안 풀어야 한다. 세 영역 모두 응시자가 특정과목의 전문지식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를 평가하지 않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논리적 사고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차이점은 그 사고능력이 텍스트 자료에 적용되느냐 수치 자료에 적용되느냐 구체적 상황에 적용되느냐에 놓여 있다. 언어논리영역은 글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고 추론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자료해석영역은 수치자료를 조리 있게 정리하고 이해하고 계산하고 분석하고 추출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그리고 상황판단영역은 상황을 사리에 맞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추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평가 영역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각 영역은 4~5개의 하부 평가항목을 가지고 있다. 암기지식 위주의 평가보다는 학습능력, 창의성, 변화대응능력 등을 평가하려는 전체 PSAT의 취지에 맞게 언어논리영역은 다양한 정보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파악하는 능력(이해능력), 파악된 정보들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내는 능력(추론능력), 정보와 정보의 관계를 평가하는 능력(비판능력), 정보들을 재조직하거나 새로운 정보들을 표현하는 능력(표현능력)을 주로 평가하고 있다.

이해능력 문제들은 글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정보, 글이 다루고 있는 화제와 논쟁점, 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찾는 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글의 맥락을 통해 개념들을 이해하고, 글에서 제시된 원리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도 이 범주에 속한다. 표현능력 문제는 자료들로부터 쓸 수 있는 글의 내용을 정하고, 적절한 개요를 구상하여 문단들을 글의 주제와 목적에 맞게 논리적으로 조직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관련 단락과 무관 단락을 구별하고 앞 뒤 빈자리에 적절한 문단·문장·단어를 채우며, 글을 통일성 있게 고쳐 써 완성하는 능력도 평가한다. PSAT 취지에 맞는 표현능력 문제를 개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교적 적은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다. 사고능력 시험이라는 기본적인 성격을 해치지 않으면서 표현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

이며 실제로 국어교육학, 국어학, 국문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

추론능력 문제들은 주어진 정보에서 필연적으로 참이 되는 주장들을 이끌어내고, 발생한 사건과 현상의 원인을 찾아내거나, 주어진 원인들로부터 결과를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글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주어진 정보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결론, 글이 은연중에 가정하고 있는 숨은 전제들,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반드시 가정해야 하는 전제 등을 찾는 능력도 평가한다. 그리고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과 추론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거나, 주어진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찾아내는 문제, 그리고 역설적 상황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문제도 추론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에 속한다.

비판능력 문제들은 글에 등장하는 다양한 주장들이 서로 어떤 논리적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고, 논증을 이끌어가는 방식을 분석하고, 글을 구성하는 문장들 사이의 논리적 지지 관계를 파악하여 이를 도식화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그리고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하는 방식에 따라 논증들을 분류하거나, 논증들 사이의 차이점을 구별해 내는 것, 타당한 논증과 부당한 논증을 구별하고, 논증에서 전제가 결론을 잘 지지하고 있는지, 추론에 어떤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 글의 결론을 강화하거나 논박하는 것 등도 평가한다.

언어논리영역 문제들에서 다루는 글은 특정 학문의 전공자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에서 골고루 가져온다. 그리고 대학교양 수준을 넘는 전문용어나 이론이 글에 포함될 경우 비전공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한다. 지금까지 언어논리영역의 문제들은 국어 문법과 수사법을 잘 따르고 있는 글, 논지가 분명하고 논지와 논거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논리적으로 완결되어 있는 글,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사고능력을 측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수준 높은 글,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다루거나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글을 소재로서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PSAT의 성과를 이야기하기 전에 종전 고시제도의 문제점을 간단히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PSAT의 도입이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첫째, 암기력과 단편지식을 평가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직무수행과정에서 고급공무원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검증할 수 없었다. 둘째, 시험과목의 수가 너무 많아서 공직 지원자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어, 겉보기에 경쟁률은 높지만 실제로는 우수 인력이 공직을 기피하는 현상을 낳았다. 셋째, 시험과목이 너무 많고 외워야 할 지식이 너무 많다 보니 공직 지원자의 시험 준비 기간이 장기화되었다. 높은 학력을 지닌 국가인재들의 장기적인 고시준비는 단순히 개인적 낭비를 넘어 국가적 낭비인데 국가시험이 국가의 인적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는 꼴이 되었다. 넷째, 평가내용이 대학생활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소양과 동떨어져 있어서 공직 지원자들은 대학교육을 떠나 고시원과 학원을 전전하며 수험준비를 해야 했는데 이는 대학교육과 사회교육 시스템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기존 시험의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SAT는 다음과 같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수험생의 수험주기 장기화를 막기 위해 누구나 1차 시험에 응시하여 적정 성적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 단순한 암기를 통해 습득되는 단편적 지식을 묻는 문제나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어려운 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 둘째, 학교교육과 고시제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공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공교육의 일반적 교양교육을 포괄하는 문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사고를 요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한다. 셋째, 다양한 독서와 토론을 통해 넓고 깊은 교양을 쌓은 응시자가 유리한 문제를 출제한다. 이를 위해 여러 분야의 지식을 복합적으로 응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통합학문적인 문제를 위주로 출제한다.

PSAT는 통상적 지능검사에서 주로 검사되는 몇몇 평가요소들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상당한 지식을 요구하는 상식 어휘력 맞춤법 문법 대수학, 그리고 인성검사에서 취급하는 정서적 요소들도 배제하고 있다. 이는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려는 객관적 직무적성검사로서는 PSAT가 매우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PSAT는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심도 깊게 평가하는 최적화된 시험이며, 주관적 소견으로 국내외에 이를 능가하는 다른 평가도구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PSAT 언어논리영역은

2008년 출현하게 될 LEET를 포함하여 텍스트 자료를 통해 검사하는 모든 유형의 사고능력 평가도구들이 참조해야 하는 범례로 간주될 것이다. 아래 도표는 학습능력, 논리적 의사소통 및 판단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공기업과 사기업 등에서 도입한 다양한 평가도구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PSAT의 평가항목들을 최소한 포함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²⁾

PSAT는 논리적 사고능력을 평가하고 있어서 암기 위주의 집약적 또는 압축적 수험공부를 통해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도록 애초부터 설계되어 있다. 평상시에 폭넓은 독서와 토론 등을 통하여 주어진 문제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수험생은 공교육 내 교양과 전공 분야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사고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고능력은 교육, 독서, 토론, 비판, 참여 등 다양한 사안들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오랜 과정 속에서 향상된다. 이 과정은 대체로 타자와 부단한 접촉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 접촉을 통해 우리는 타자의 견해를 이해하고, 견해차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자기 의견을 더 잘 표현하고, 그리하여 상호이해와 합리적 일치를 모색하게 된다. 이 과정과 접촉과 활동 속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PSAT의 궁극적 이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는 최소 도구로서 PSAT

능 력	문제유형	PSAT	채택 시험 및 기관
언어능력	어휘력 : 동의어, 유의어, 반의어, 맞춤법, 사자성어, 속담, 어의, 관용구	×	LEET, SSAT, DCAT, SK, FAAT
	단어 사이의 관계	×	SSAT
	문장순서 배열, 장문과 단문의 이해	이해능력	LEET, SSAT, RPST, DCAT, SCCT, FAAT, SK, LS전선, GS건설,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한전
	개요작성 등 표현능력	표현능력	LEET, DCAT, FAAT

2) 각 기업에서 도입한 직무적성 평가도구들로는 다음 같은 것들이 있다. SSAT(삼성직무적성검사), RPST(LG 직무적성검사), DCAT(두산직무적성검사), SCCT(STX 직무적성검사), FAAT(금융업직무적성검사), CAT(CJ인지능력평가) 등.

능 력	문제유형	PSAT	채택 시험 및 기관
추론능력	수의 변화 추이 추리	×	SSAT, RPST, FAAT, SK
	도형의 변화 추이 추리	×	SSAT, RPST,
	언어적 추론과 연역논증, 논증평가	추론능력 비판능력	LEET, SSAT, RPST, DCAT, SCCT, FAAT, SK, LS전선, GS건설,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 협, 한전
수리능력 자료해석능력	대소판별, 연립방정식	×	SSAT, SK
	통계, 그래프, 도표를 이용한 계산	자료해석	SSAT, RPST, DCAT, SCCT, FAAT, SK, LS전선, GS건설,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한전
상황판단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 교제의 소극성 유무	×	SSAT
	수식을 세워 원하는 결과 얻기	×	FAAT, SK
	문제파악, 대안 모색, 대안의 평가	상황판단	SSAT, FAAT, SK
사무지각	다른 문자 찾기, 범위 내 포함 관계, 동일 문자 나열 찾기, 문장대조, 중 복 문자 찾기, 문자 치환	×	공기업
공간판단 공간지각	유사도형, 블록 개수, 면 색 칠하기, 편칭, 전개도, 도형배열	×	SSAT, RPST, DCAT, FAAT, GS건설, SK
기계이해	기계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	×	DCAT, LS전선, GS건설

3. PSAT에 대한 반응과 결과

PSAT는 2004년 이후 총 7회의 시험이 시행되었는데³⁾ 언어논리영역 시험 시행 결과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⁴⁾

3) 2004년 2월 시험은 행정자치부 고시과에서, 2005년 2월 시험부터 2008년 2월 시험까지는 중앙인사위원회 출제관리과에서 주관했으며,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시험출제과에서 주관할 것이다.

4) 아래 수치들 중 일부는 수험생 전원 또는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산출된 수치가 아니며 따라서 보다 완전한 통계자료와 수치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다 정확한 또는 공식적인 자료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제공된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시 기	전체평균	합격자평균	변별도	이의제기	정답변경	행정쟁송
04. 2	56	68	0.28	29	0	0
05. 2	65	75	0.29	15	0	0
06. 2	71	81	0.31	64	0	0
07. 2	59	73	0.28	56	0	0
08. 2	-	-	-	38	0	-

PSAT가 고급공무원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제대로 변별하여 PSAT 점수 우수자가 실무에서 탁월함을 보이고 있는지 아직은 축적된 자료가 없어서 평가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객관적 지표 하에서 개별 공무원의 업무성과가 연속적으로 추적되어야 하는데, 다양한 직무와 다양한 보직경로 등에 일관되고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이 아직은 완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인사실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언젠가 PSAT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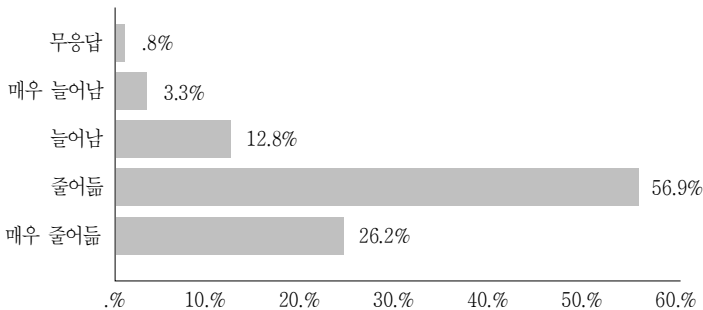
성과를 평가하는 비교적 쉬운 방법은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과거 중앙인사위원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험생, 합격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⁵⁾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결과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 결과들은 언어논리영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PSAT 전체에 해당된다. 일정한 성과 또는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언어논리영역만의 성과는 아니다.

3.1. 수험 부담의 감소와 수험기간의 단축

2006년 PSAT 응시자 설문 결과, PSAT 도입 후 수험부담이 줄었다고

5) 2006년도 응시자 설문조사의 답변자는 2,403명이며, 2007년도 응시자 설문조사의 답변자는 3,256명이다. 2007년도 2차 합격자 대상 설문조사의 답변자는 367명이다. 통계자료의 분석과 정리는 현재 행정안전부에 재직 중인 김기원 박사와 최선호, 김희강 사무관에 의해 주로 수행되었다. 이 글에서는 오차범위와 신뢰수준 등 통계조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밀하게 다루지 않을 것이다.

답변한 사람은 61%에 달했다. 그리고 53%의 수험생이 평소 학교교육에 충실한 수험생이라면 3개월 정도만 PSAT를 준비하면 합격선에 이를 수 있다고 답했다. 2007년 행정고시 2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식형 시험 대비 PSAT의 수험 부담 정도를 설문하였는데 83%의 합격생이 수험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답변하였다(아래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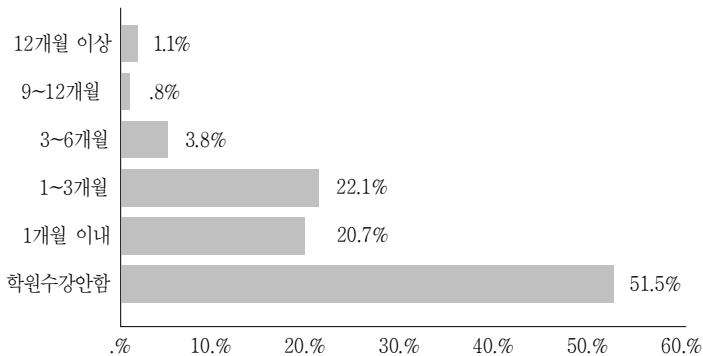
또한 2007년도 합격자의 62%는 PSAT 1차 합격을 위해 필요한 별도의 준비기간을 3개월 미만이라고 답했고 14%는 별도의 준비기간이 아예 필요 없다고 답했다.

한편 2006년 조사결과 응시생의 절반 정도가 학원수강 등 6개월 이하의 단기 심화학습으로 높일 수 있는 점수는 고작 5점 이하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것은 벼락치기 수험준비로는 PSAT가 변별하려는 능력을 획득할 수 없음을 수험생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다. 예측전대 PSAT는 오히려 학습의 전 역사에 걸쳐 형성되는 능력을 변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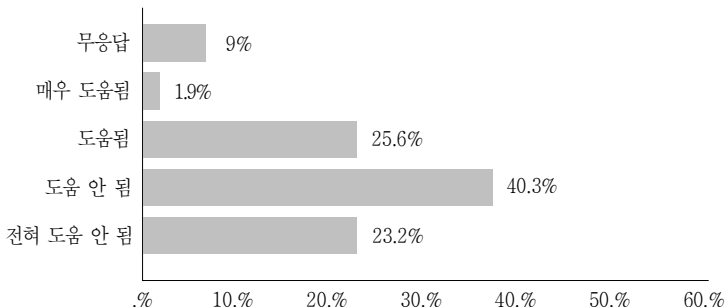
3.2. 학원과 수험서의 영향력 감소

2006년 PSAT 응시자 설문 결과, 51%의 수험생이 전혀 학원 수강을 하지 않았으며, 3개월을 초과한 사람은 전체 수험생 중 10%에 불과했다. 2007년 PSAT 응시자 설문 결과, 학원 수강을 전혀 하지 않은 수험생은

54%로 늘었다. 2007년 2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설문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아래 도표). 전혀 수강하지 않았거나 1개월도 채 되지 않는다고 답한 합격생은 72%에 달했다. 반면 3개월을 넘게 수강했다고 한 합격생은 6%에도 미치지 못했다.



학원 수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의 효용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었다. 2006년 PSAT 응시자 중 학원 수강을 한 응시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지 25%의 응시자만이 학원 수강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2007년도 2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3.3. 독서와 토론의 중시

수험생의 학습 방법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06년 조사 결과 수험생이 추천하는 학습방법으로 독서와 토론 25%, 기출문제 풀이 34%였다. 2007년 조사에서는 이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다. 수험생이 추천하는 학습방법으로 독서와 토론이 41%로 대폭 늘었다. 수험서 풀이를 추천한 사람은 21%에서 15%로 줄고, 학원 강의를 추천한 사람은 9%에서 6%로 줄었다. 2007년 2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비슷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답변자 중 36%가 독서와 토론을 추천하였고, 41%가 기출문제 풀이를 추천하였다. 수험서 풀이를 추천한 합격자는 12%에 불과했고 학원강의는 고작 2%만 추천했다.

추천 학습방법	2006년 응시자	2007년	
		응시자	합격자
학원강의	9%	6%	2%
수험서 풀이	21%	15%	12%
독서와 토론	25%	41%	36%
기출문제 풀이	34%	31%	41%
대학교 수업	3%	7%	6%

3.4. 학교 교양에 대한 관심 증가

반면 학습방법으로 학교 교양 수업을 추천한 수험생은 2006년 3%에서 2007년에 7%로 늘었다. 또한 수험생의 학교 교양교육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2006년 응시자 대상 조사 결과 관심이 증가했다고 답변한 수험생은 전체 32%였는데 2007년에는 37%로 늘어났다. 이러한 관심 증가를 교양교육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시험 맞춤형 강좌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학교 강의는 수험 시장에 의해

좌우되지 말고 오히려 대학의 교육이 각종 시험의 평가방식과 내용을 선도했으면 좋겠다.

역사가 일천함도 불구하고 이처럼 PSAT는 수험생이 수험도서나 학원가에 의존하는 경향을 줄이고 정상적인 공교육을 통해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수험문화를 조성하는 데 다소 기여하고 있다. 이것은 PSAT에 지식형 문제를 가미하라는 안팎의 요구를 시종일관 거부하고 논리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일 것을 고집했기 때문에 성취한 것이라고 믿는다. 실제 PSAT 문제들이 PSAT의 애초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응시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2007년의 응시자의 50%가, 합격자의 77%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사용된 지문이나 자료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2007년 응시자의 57%가, 합격자의 87%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수험생은 공직에서나 민간에서나 문제해결능력과 변화대응능력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학원이나 주입식 교육에 의존하기보다 정상적인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을 통해 스스로 사고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또한 대학들은 지식정보화와 세계화에 맞는 인적 자원을 키워내기 위해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을 어떻게 강화할지 더욱 고민해야 한다. 이 점은 특별히 국어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매우 근본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자 과제이다.

4. 나오는 말

언어논리영역의 성과와 함께 그 한계를 균형 있게 기술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글은 전반적으로 ‘언어논리영역’만의 성과를 기술하지 못했고 그 ‘한계’에 대해선 아직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국어교육 전문가들이 그간 출제된 PSAT 언어논리영역 문제들의 한계를 오히려 더 잘 아실 것이다. 다음과 같은 지적들이 실제로 제기되었고 이것은 언어논리영역의

한계가 무엇인지 넌지시 말해주고 있다.

문제가 너무 어렵고 사변적이다. 지문이 문학적이지 않다. 국어 문법, 어휘 등도 평가해야 한다. 문학적 이해 및 표현 능력도 평가해야 한다. 표현능력이 굳이 논리적인 필요는 없다. 실질적 글쓰기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논리적 분석은 일상적 의미를 왜곡한다. 형식논리에 집착하는 측면이 있다 등.

이런 지적들에 대한 논의는 지면보다는 토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각 지적에 대한 보다 충실한 논의와 반론을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다만 이 한계 중 일부를 극복하기 위해 담당 전문가들이 계속 노력 중에 있다는 점을 확인해 둔다.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학자들은 PSAT 언어논리영역의 한계를 이와 다르게 심지어 정반대로 인식할 것이다. 각자는 자신의 이념에 비추어 한계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이다. 국어교육 전문가들은 국어교육의 이념을 바탕으로 PSAT의 한계를 볼 것이며 이는 지당한 일이다. 나아가 그들은 그 한계를 극복할 대안을 제안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 먼저 국어교육의 이념을 지식정보시대에 맞게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식과 정보가 자본이 되는 시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권력이 되는 시대에 논리적 사고는 매우 중요하다. 논리적 사고는 한편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산출하고, 다른 한편에서 잘못된 지식으로, 왜곡된 정보로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감시한다. 논리적 사고능력을 갖춘 지식노동자들은 더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것이고, 그것을 갖춘 투자자들은 더 안정된 투자를 할 것이고, 소비자들은 자기 소비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고, 시민들은 자기 몫의 주권을 행사할 것이다. 행정 관료들은 정보 공공재를 보다 많이,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것이며, 사법 관료들은 시민들의 주권과 권익을 높이는 데 보다 탁월함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논리적 사고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도구가 없다면,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기 몫의 역할과 권력을 부여하지 하지 않는

다면, 지식정보사회는 또 하나의 착취 시스템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PSAT의 도입과 정착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며, 우리 공동체는 공동체의 성숙과 건전성을 위해 이를 계속 가꾸어 나가야 한다. 물론 새롭게 등장하게 될 LEET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한다.*

* 본 논문은 2008. 2. 29. 투고되었으며, 2008. 3. 6. 심사가 시작되어 2008. 3. 27. 심사가 종료되었음.

<초록>

PSAT 언어논리영역의 성격과 성과

김명석

IMF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지식정보시대에 적합한 지식노동자를 공직사회에 배치하려는 전략으로서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했다. 학습능력과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이 시험은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논리영역은 국어 문장들로 구성된 글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 흐름에 따라 표현하고, 논리적으로 추론 및 비판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이 글에서 PSAT 언어논리영역을 개관하고 여태 시행된 시험의 결과와 성과를 요약했다. 수험생의 수험부담이 감소하고 수험기간이 단축되었으며, 수험방법은 학원과 수험서에 의존하는 데서 독서와 토론 등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대학교 등 공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공교육 내 국어교육은 사고능력 위주의 언어능력을 배양하는 데 좀 더 큰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핵심어】 공직적격성평가, 언어논리영역, 사고능력, 지식관료, PSAT

<Abstract>

Accomplishments of PSAT

Kim, Myeong-seok

After IMF relief loan at 1998, the Korean Government realized the necessity of making government officials knowledge-oriented and more logical, more critical, introduced Public Service Aptitude Test(PSAT) as the primary examination for recruiting junior administrative officials since 2004. PSAT is composed of three fields, Language and Logic, Data Analysis, Situational Judgement, all of which evaluate learning and logical thinking ability. In particular, Language and Logic Field evaluates reading comprehension, logical construction and inference, critical thinking. After introduction, PSAT brings several positive results as follows: reduction of examination burden and period, changing preparation method of exam to critical reading and logical debates, increase of concern in public educations such as the liberal arts course of college.

[Key words] Language and Logic Field, logical thinking ability, 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

【토론문】

“PSAT 언어논리영역의 성격과 성과”에 대한 토론문

신선경(서울대)

본 발표는 지난 2004년부터 국가 고시에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는 PSAT의 도입 목적과 의의 및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성과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PSAT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만한 것이 없으므로 PSAT 언어 논리 영역에 대한 구체적 방향과 내용에 대한 좀더 상세한 논의를 돕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므로써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PSAT의 여러 영역 중 국어 능력과 가장 깊은 관련을 맺는 언어 논리영역의 ‘언어논리’의 의미가 ‘언어적 논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언어’와 ‘논리’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발표문에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언어논리 영역은 텍스트 자료에 적용되는 사고 능력에 대한 영역’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 정의에 따르면 PSAT가 지향하는 언어논리는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만약 후자의 의미라면 언어 텍스트를 통한 논리적 사고력뿐 아니라 일반 논리학에서 다루는 형식논리에 대한 이해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텍스트의 논리적 이해뿐 아니라 논리학의 기본 지식도 묻는 영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발표문의 말미에서 언급하였듯이 형식논리에 집착하는 측면이나 논리적 분석이 일상적 의미를 왜곡한다는 지적 등이 무의미해질 것이므로 언어논리에 대한 정의와 범위 한정이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둘째, 성과에 대한 검토 부분에서 문항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설문이나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이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 묻고 싶다. 문제 출제 의뢰 및 문제지 구성 시에 지문의 분야별, 주제별, 텍스트의 구조별 균형 등에 관한 기준과 텍스트의 길이 및 난이도 분석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이제까지 실시된 시험의 문항 분석에 대한 결과 및 수험생 전문가의 반응에 대한 결과 등에 대한 좀더 상세한 논의를 부탁드린다.

세 번째, 언어 논리 영역에서 평가하고 있는 이해, 추론, 비판, 표현 중 표현의 경우, 문항 개발 및 평가에서 있어서 나머지 항목보다 평가 방법과 기준을 세우는 일이 어렵고 복잡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개별적 연구나 논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는지 알고 싶다.

네 번째, 수험생의 설문 결과에서 수험 준비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독서 토론이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학 차원에서 PSAT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양 과목을 설계한다면 이것은 어떤 형식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묻고 싶다.